5. 더불어 사는 세상

고전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당대의 통념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의를 선택한 선조들의 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防民之口는 甚於防水라. "사기"

前事之不忘은 後事之師也라. "사기"

積善之家는 必有餘慶이요

積不善之家는 必有餘殃이라. "역경"







새로 배울 한자

積 **적** 쌓다　殃 **앙** 재앙　舟 **주** 배　庶 **서** 여러　載 **재** 싣다
覆 **복** 뒤집히다　邦 **방** 나라　賤 **천** 천하다　焉 **언** 어조사　恥 **치** 부끄러워하다

- 於의 쓰임을 알 수 있다.
- 문장의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君者舟也요 庶人者水也라.

水則載舟하고 水則覆舟니라. "순자"

邦有道에 貧且賤焉이 恥也며

邦無道에 富且貴焉이 恥也니라. "논어"

읽고 풀이하기



防民之口, 甚於防水.
~의 ~보다

직역 ☞

의미 ☞

前事之不忘, 後事之師也.
~을 ~의

직역 ☞

의미 ☞

*'前事之不忘'은 '不忘前事'가 도치된 표현임.
'之'는 도치문임을 보여 주기 위해 쓰인 경우로 '~을(를)'로 풀이할 수 있음.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하)는

직역 ☞

의미 ☞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백성 뒤집다

직역 ☞

의미 ☞

*覆: ① **복** 뒤집다 飜覆(번복)
② **부** 덮다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또 ~이다

직역 ☞

의미 ☞

새로 배울 한자

飜 **번** 뒤치다
衰 **쇠** 쇠하다

문장의 유형

-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예) 破心中賊難. (마음속의 적을 깨뜨리기는 어렵다.)
-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
  예) 無道人之短.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예) 傷人乎? (사람이 다쳤는가?)
- **감탄문**: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
  예) 甚矣. 吾衰也! (심하도다. 나의 노쇠함이여!)

단문 주제를 통한 비판적 사고 키우기

아래의 자료를 보고 '前事之不忘, 後事之師也.'의 의미를 살려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자기 생각을 글로 써서 발표해 보자.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1970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치의 손에 잔혹하게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한겨레신문, 2015. 12. 29.

생각 넓히기

인문학 더하기

역사에서 혁명과 쿠데타는 다르다.

민중은 위정자가 폭정을 일삼으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상을 바꾸어 놓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한다. '革'은 '고치다'라는 의미이고, '命'은 '천명(天命)'을 뜻한다. 이를 이론적으로 처음 제시한 사람은 맹자다. 그는 '仁'과 '義'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천명'을 받아 폭군을 징벌하고 민중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사람다운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지배층의 일부가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무력과 폭력 등 비합법적 수단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는 혁명과 엄격히 구분하여 '쿠데타(coup d'État)'라고 한다. 쿠데타는 나폴레옹 1세와 3세의 권력 탈취 과정에서 생긴 프랑스어인데, '국가에 대한 일격 또는 강타'를 의미한다. 쿠데타는 제도와 체제의 개혁보다는 쿠데타 세력의 집권을 우선시하므로 사회의 정의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사적 권력욕의 반영이며 대부분 독재로 연결된다. 우리 역사에서 4·19는 기존 부패한 지배 세력을 타도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얻어내고자 했던 민중의 의로운 궐기였다. 그러나 그 뒤 일어난 5·16은 4·19의 민주적 열망을 짓밟아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독재로 연결되었으므로 쿠데타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력 키우기



1 '阜(阝)'·'邑(阝)'이 들어간 한자

隆 융 크다 _ 隆盛 융성　　際 제 사이 _ 實際 실제　　險 험 험하다 _ 危險 위험
邦 방 나라 _ 聯邦 연방　　郊 교 성밖 _ 郊外 교외　　郭 곽 성곽 _ 城郭 성곽

2 학습 용어_ 음악·미술·체육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단어를 찾아보고, 풀이와 의미를 알아보자.

音樂·美術·體育

演奏　　齊唱
版畫　　蝶泳

3 어휘 의미 확장하기

- 角逐 **각축** 뿔을 다툼 → 서로 이기려고 다투며 덤벼듦.
- 亂舞 **난무** 어지럽게 춤을 춤 → 함부로 나서서 마구 날뜀.
- 塗炭 **도탄** 진흙과 숯불 →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
- 落點 **낙점** 점을 찍음 → 여러 후보 가운데 마땅한 사람을 고름.
- 影響 **영향** 그림자와 메아리 →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침.

새로 배울 한자

隆 **융** 크다　際 **제** 사이　險 **험** 험하다　聯 **련** 잇다　郊 **교** 성밖
郭 **곽** 성곽　演 **연** 멀리 흐르다　奏 **주** 아뢰다　齊 **제** 가지런하다　版 **판** 널

확인하기



1. 문장의 독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前事之不忘

전 사 지 불 사
① ② ③ ④ ⑤

전사지불사 와(과) 일치하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모든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2. ㉠과 쓰임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防民之口, 甚㉠於防水.

〈 보기 〉

ㄱ. 良藥苦於口. ㄴ. 忠言逆於耳. ㄷ. 靑出於藍而靑於藍.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

정승 홍서봉의 어머니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거친 밥과 나물국도 거를 때가 많았다. 하루는 여종에게 고기를 사 오게 하여 고기 빛깔을 보니, 독이 있는 것 같았다. 이에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병이 날까 염려하여 머리 장식을 팔아 그 돈으로 고기를 모두 사서 담장 밑에 묻게 하였다. 정승 홍서봉이 말했다. "어머니의 이런 마음이 신명에 통할 만하니 자손이 반드시 번창할 것이다."

① 積善之家, 必有餘慶.
② 二人同心, 其利斷金.
③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④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⑤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蝶 **접** 나비 泳 **영** 헤엄치다 逐 **축** 쫓다 塗 **도** 진흙 炭 **탄** 숯
點 **점** 점 影 **영** 그림자 響 **향** 울리다